

◆◆◆◆◆
**이사간 집의 연체 요금 때문에
 전기·가스 끊길 판**



결혼하여 처음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모든 일처리를 다 끝내놓고 그동안 살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전기요금, 관리비, 가스비, 신문 대금 등을 적정 가격으로 주고 받았다.

그런데 한달 후에 날아온 고지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전에 살던 집에서 가스비, 전기요금 등을 몇 달치나 밀려 놓았기 때문이다.

액수도 만만치 않았지만 체납분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곧 전기와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경고장이 날아왔다.

이사간 집으로 몇 번 전화를 했지만 모른체 하기만 했다. 그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너무 껄뻐해서 전력공사에 전화를 걸었다. 실제 체납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 그 집의 전기공급을 중단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이다.

전력공사에서는 그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개인 사정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 없으니 전기를 계속 사용하려면 일단 요금을 내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다.

요금을 몇 달씩 밀려놓고 나 몰라라 한 사람들의 태도도 어이가 없지만 무조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돈을 지불하라고 하는 규정도 문제다. 이사를 하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어디 한 두 명이겠는가?

밀린 요금을 이런 식으로 거두어 들이면 법을 모르는 선량한 사람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규정은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하며 소비자들도 이사 갈 때는 이런 문제를 꼼꼼히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미선<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
**제휴 카드 발급받을 때
 기존에 쓰던 신용카드 해지 안돼**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를 항공사 제휴 카드로 바꾸기로 했다. 연회비가 비싸긴 하지만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마일리지가 누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더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래서 카드를 발급 받은 은행에 가서 원래 있던 우량 카드를 해지하고 항공사 제휴 카드로 발급 받고 싶다고 하니 그렇게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다시 추가로 발급 받을 수는 있어도 해지하고 발급 받는 것은 안된다고 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연체 사실도 없거니와 가지고 있어봐야 사용하지 않을 카드인데 왜 해지가 안된다는 것인가.

담당자 말에 따르면 항공사 제휴 카드를 발급할 경우 회원의 신용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것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량 카드로 확인하고 발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다는

소 · 비 · 자
광장

소비자 광장은 독자 여러분이 만드는 난입니다. '소비자시대'에 바라는 글이나 소비자가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를 담은 수필·제언·만화·만평·사진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된 독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그달치 '소비자시대'를 드립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주소·전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137-700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한국소비자보호원
 정보기획팀 '소비자 광장' 담당자 앞
- 문의 전화 : (02) 3460-3287(임은정)
- PC통신 : 하이텔 ID pubsdobi
 천리안 ID cpbdcet
- FAX : 3461-0271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안된다. 기존의 카드를 기준으로 해서 새 카드를 만들고 난 다음, 예전에 쓰던 카드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지 왜 은행에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요하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카드 연회비 등 각종 수수료 때문에 그러는 듯했다.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연회비는 무조건 청구되니 카드를 하나라도 더 발급하는 것이 이익일테니 말이다.

제휴 카드가 나오기 전 카드를 발급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필요도 없는 카드를 함께 사용해야만 별도로 항공사 제휴 카드를 발급해 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평한<전북 진안군 성수면>



서점에서는

1회용 비닐 봉투 버젓이 사용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오던 비닐 봉투와 쇼핑백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처음엔 슈퍼마켓에 갈 때 빈 쇼핑백이나 장바구니를 들고 간다는 것이 어색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가방이나 봉투를 들고 와 장을 보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어디를 가도 1회용 비닐 봉투나 쇼핑백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조금은 익숙해져 있을 무렵 시

만평



자연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공보혁<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내의 대형 서점을 가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책을 두 권 산 후 계산을 치르려는데 직원이 비닐 봉투에 자연스럽게 책을 담아주는 것이었다.

당연히 서점에서조차 비닐 봉투는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구입자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그냥 가방에 담겠다며 비닐 봉투를 빼두고 나오긴 했지만 여간 쓸쓸한 게 아니었다.

1회용 비닐 봉투 사용 금지가 슈퍼마켓이나 식품 매장에 초점이 맞춰 있다보니 자연 서점같은 다른 매장에 대해서는 소홀해진 모양이다.

책은 구입 후 도장만 찍으면 그냥 손에 들고 나오거나 가방에 넣으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봉투가 필요없다. 서점에서의 1회용 비

닐 봉투 사용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다.

■박숙인<광주시 북구 두암동>



현금 자동 지급기 수표를 현금으로 인식해

얼마전 동대구 단위농협 수성점에서 현금 지급기로 현금 20만 원을 인출했다. 시간이 급해 그 자리에서 액수를 확인하지 못하고 버스에 탄 후 세어 보았는데 만원짜리 19장에 10만원권 수표 한 장이 섞여 있었다.

일을 보고 난 후 다시 농협에 들러 책임자에게 사실을 말하고 수표를 준 다음 만원을 돌려 받았다. 책임자의 말로는 기계가 수표를 만원권으로 인식을 해서 가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표와 현금이 섞이지 않도록 수표 넣는 칸과 현금 넣는 칸을 완전히 분리하는 식으로 기계 구조를 바꿔서 이런 금융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표가 섞이게 되면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당황하게 되고 다시 은행에 들러 돈을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낭비되는 불편이 따른다.

은행측에서도 소비자가 수표를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담당자의 실수나 기계의 오류가 주된 원인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

■장경화<대구시 수성구 수성3가> (소)